



닭고기 수입자제 요청 수입강행시 실력행사 의지 밝혀

본회는 7월 1일 이후 수입업체들이 상당량의 닭고기를 수입하여 국내 육계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각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다음과 같이 양계인들의 입장을 담아 닭고기 수입 자제 요청을 하였다.

- 다 음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UR 협상결과에 따라 '95~'97년 6월까지의 쿼터제로 일정량의 외국산 닭고기가 수입되었으며 '97년 7월 1일부터는 닭고기 수입의 완전자유화가 예고된 바 있어 우리 전국의 양계인 일동은 오랫동안 갖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그 규모가 워낙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근자에 와서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지경에 처하는 등 국내경기의 침체로 닭고기 소비마저 감소되어 지난해부터 닭고기 가격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낮은 가격이 장기화 되어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으로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우선 해결하다 보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육계산업 기반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같은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은 귀사에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완전개방되자마자 육계농가의 어려운 사정은 고려치 않고 많은 양의 닭고기를 수입한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5. 우리는 귀사의 운영방침에 관여할 권리도 없고 관여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닭고기를 계속 수입함으로써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육계산업이 붕괴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국가경제도 희생시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양계농가를 보호육성하여 국가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농촌경제를 살리자는 높은 뜻에서 앞으로 닭고기 수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6. 우리 전국의 양계인 일동은 양계업을 천직으로 알고 크고 작은 가격파동 등 갖은 고난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인내심과 긍지를 갖고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한다는 뜻을 갖고 국민의 제2식량이자 건강식품인 닭고기를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양계업은 양계인의 삶의 터전이고 생업수단이기 때문에 양계산업을 지키느냐 여부는 우리 양계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사를 위시하여 각 수입회사들이 우리 전국 양계인들의 뜻과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닭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전국의 양계인 일동은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제품의 불매운동, 원산지 표시의 적법성 여부조사 고발 등 각종 실력행사로 대응한다는 것이 양계인의 뜻이요 의지이오니 전국양계인들의 이러한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양계농가를 도와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높은 뜻에서 닭고기 수입을 적극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산계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활용대책 건의

국산계 보존위해 정부 참여 요청

본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계 육종사업

을 실시하고 있는 미원마니커(주)가 회사의 경영상 육종사업을 전개할 여력이 없는 관계로, 육종사업을 중단할 처지에 있어 국산계 육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국산계 육종사업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국산계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활용대책을 본회에 건의해 음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 및 축협중앙회에 다음과 같이 협회입장을 밝히고 국산계 육종사업 활성화에 정부의 참여가 뒷바침되어야 할 것을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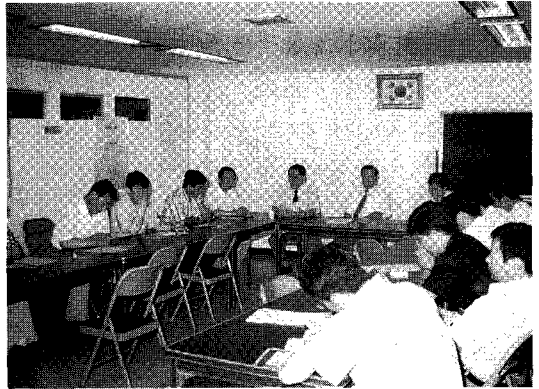
- 다 음 -

1. 귀소(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76년 이후 국산종계를 개발하여 산란종계의 15~20%, 육용종계 30~35%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왔으나 이를 개발보급하던 육종회사의 모회사(천호부화장·천호인티)가 1993년 10월에 도산됨에 따라 국산계 육종사업도 중단되고 귀중한 유전자원이 멸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음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3. 그러나 국산계 개발 육종회사의 모회사인 천호부화장, 천호인티(주)를 인수한 미원마니커(주)는 물론 정부, 학계, 연구계, 업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국산종계의 육종사업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종부문에서 파생되는 막대한 적자로 인하여 더 이상 이를 감수할 여력이 없어 부득이 육종사업을 중단하겠으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한바 본회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닐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치 않은채 육종사업을 중단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유전자원이 멸실되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중국에 가서는 한국이 유전적 식민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닭의 육종업무는 단기간내에 또는 어느 개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하여야 할 중차대한 문제로서 유전자원의 보존 조치만이라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 그러므로 가축재량협의회내 닭분과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오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하겠습니다.

닭고기 수입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

수입업체 및 농림부에 항의 방문



본회는 닭고기 수입개방과 관련 7월 1일을 기점으로 (주)하림에서 64톤이라는 적지 않은 물량이 수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수입을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키 위해 본회 회의실에서 지난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육계, 종계인들은 국내 육계 산업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계열업체가 닭고기를 수입해 왔다는데 분노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주)하림측의 입장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결국 닭고기 수입이 기위 개방이 된 만큼 수입을 막을 수는 없으나 육계계열업체만은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항의 방문단을 구성, (주)하림과 농림부를 방문키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종계, 육계인으로 구성된 항의 방문단은 (주)하림을 방문, 업계의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수입계획 등에 대한 입

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주) 하림측은 닭고기를 수입하는 수입종합상사들에 의해 거래처가 잠식당할 경우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육계산업이 무너질 우려성이 있어 국내에서 원료공급이 부족한 부위인 닭다리 와 가슴살을 부득이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금년중에는 닭날개 등 122톤을 수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닭고기 수입은 최대한 줄일 것이며 닭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민간차원에서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및 육계인이 다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국내 육계산물의 생산과잉을 막기 위해서 병아리 값이 500원 이상 폭등하지 않는 한 종란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원종계만 수입하여 종계를 생산하고 종계를 직접 수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23일에는 항의 방문단 일행이 농림부를 방문,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을 논의 하였다.

2단계 양계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본회는 농림부 축영 51520-402(97.7.21)호에 의거 42조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98년까지 1차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2차례 실시하여 심도있는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다.

중앙공청회는 8월 1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실시되었는데 주제발표자로는 축산기술연구소 정선부 소장이, 토론자로는 오봉국 서울대 교수(좌장), 이관용 농림부 축산국장, 김정주

건국대 교수, 이규성 양계협회 전무, 이기동 전북양계조합장, 장대석 쌍용농장 대표, 홍광표 영육농산 상무가 각각 참석하였다. 지방공청회는 8월 4일 축협 경북도지회 강당에서 실시되었으며 토론자로는 류종래 경북양계조합장, 송인환 성진부회장 대표, 오정길 송원농장 대표, 최광수 상주육계협회장이 참석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직장기 제도 정착에 노력



7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1일 부터 시행키로한 직장기 제도가 상인들과의 협조로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고시가에서 다운 폭도 10원 내외로 거래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전국적으로 가금티푸스, 감보로 등이 상당수의 계군에 피해를 주고 있어 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한편, 갈색계와 백색계에 대한 현안문제도 제기되었는데 갈색계 사육은 질병문제는 물론

생산측면에서 국가적인 낭비라는데 중점을 두고 백색란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마련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는 것이 당면문제라 강조하였다.

중계부화 분과위원회 개최 ND분무백신 실시 적극 협조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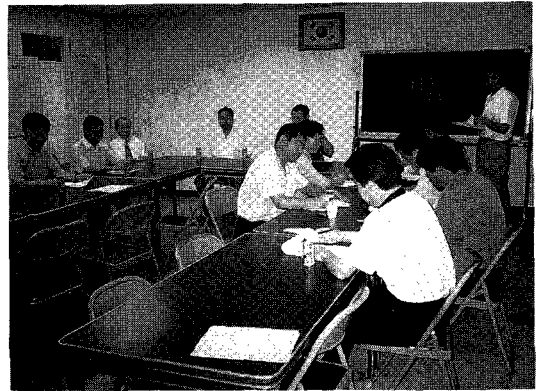


7월 중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9일 온양 그랜드파크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입닭고기 가공판매와 관련해 수입닭고기를 들여와 가공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등 적절한 응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결론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복병아리 이후 생산 동향에 대해 5월 사료생산 실적이 전년에 비해 육용종계 사료가 감소되어 다소 안정된 유통상황을 보일것에 대한 전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최근 정부의 가축질병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ND분무백신이 공급되고 있으나 1일령에 백신할 경우 부작용 발생우려와 1회 분무 백신 실시로 ND질병이 완전 차단된다고 믿는 농가가 많아 회피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험결과 성적이 양호하게 나왔으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질병퇴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농장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육계경기 회복, 입추에 신중해야



7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닭고기 전면 수입개방과 때를 같이해 밀려들어오는 닭고기 수입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응책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국내 육계산업을 이끌고 있는 계열업체까지 수입에 가담하면서 육계인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 분노하면서 육계산업 보호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서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동안 낮게 형성되었던 육계가격이 북경기로 인한 소비증가로 1,300원을 넘고 있어 호황국면에 들고 있는데 반해 병아리 숫자가 줄고 입추열기가 과열되면서 병아리 가격이 420원까지 예상되면서 추석경기를 예상해 입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